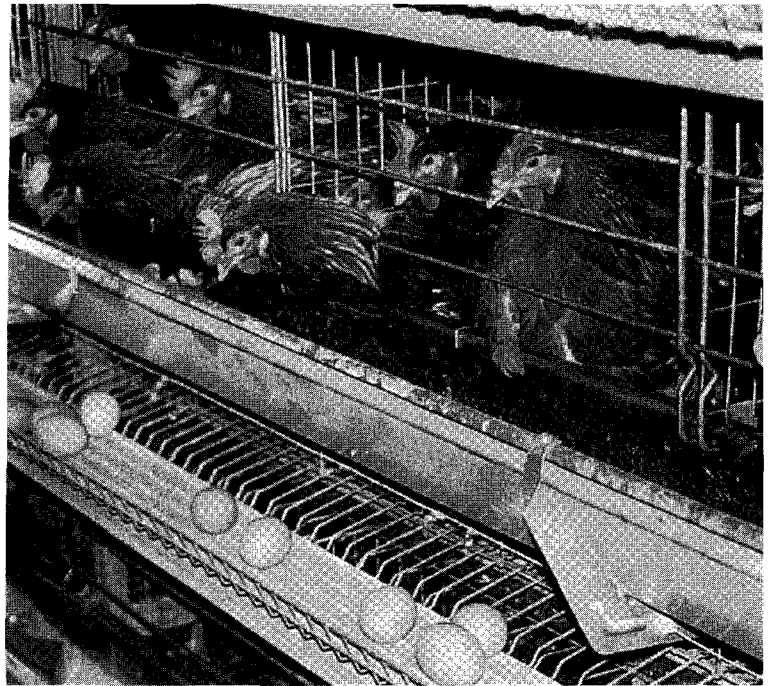


호황뒤에 불황 재연될 것인가!

□ 취재/김동진 기자

금년들면서 고난가 시대
를 구가하며 호황을
누리던 채란 경기가 다시 위
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들면서 난가가 급추락하여 전
품목 20여원씩 하락하는가 하
면 뒤늦게 노계도태가 이루어
지면서 1,300원까지 유지되던
노계가격도 역시 하락하기 시
작하였다. 이는 노계도태지연
으로 큰 알 위주의 계란생산
량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
이라 볼 수 있지만 지난해 경
제위기로 겪은 고통을 한꺼번
에 복구해 보려는 생산자들의
욕심(?)이 결국 채란경기를 어
렵게 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불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선불리 판단하
기는 어렵지만 채란경기를 다
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 금년 초 이후 채란 경기가 호전되면서 다시 불황의 싹이 돌아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부활
절(4월 4일) 이후 특별한 소비
증가 요인이 없는 가운데 노
계도태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채란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
은 분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
로 볼 때 종계입식 증가, 실용
계 생산 증가, 계란생산 잠재
력 증가, 소비 불안 등 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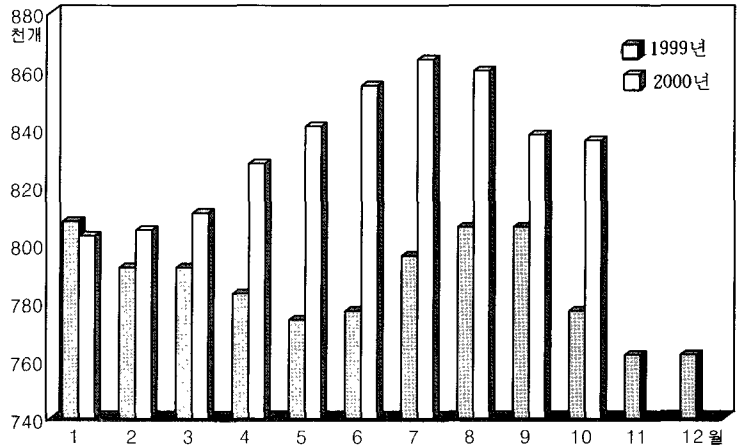
(惡材)가 쌓여있어 그 언덕을 넘어가기가 수월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악용해 일부 상인들은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난가를 허위로 조작하여 유포하는가 하면 계란수입 운운하면서 국내 전체적인 양계산업의 생산기반을 흔들어 놓으려는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 등 농가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날씨가 풀리면서 가금티푸스 등 각종 질병들이 농가들을 귀찮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질병 발생과 예방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줄 곳은 좀체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양계산업에서 질병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던 관련기관 마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어 양계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1. 종계입식 증가

병아리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가를 유지하면서 종계입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입식된 산란종계는 388,400수로 전년 같은 기간



〈도표1〉 계란생산 잠재력(입식수 기준)

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월평균 2만여수 씩이 더 입식 된 것이다.

현재 계란(큰알)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계는 지난 1997년 입식된 종계(587,220수)들로 특히 7월에 평월보다 3배가까이 입식된 종계(142,000수)가 계란생산에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6월 종계업체에서 한 달간 200만수에 가까운 실용계를 감축한 결과 병아리 가격과 난가를 고가로 유지시키는데 일조를 하여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기간 이후 입식된 계군들이 계란생산에 가세하면서 실용계 감소 효과가 상쇄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노계군을 빠른 시일내에 도태시키고 물량감

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큰 폭으로 입식되고 있는 산란종계는 당장 올해말에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주어 병아리 가격의 하락과 이 물량이 산란계농장에 전량 분량이 될 경우 2000년도 중반부터 계란의 생산과잉을 가져와 채란경기를 최악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는 것이다.

2. 금년 계란생산량 94억 개 예상

병아리 판매수수를 기초로 추정된 계란생산 잠재력을 보면 금년도에 약 94억개의 계란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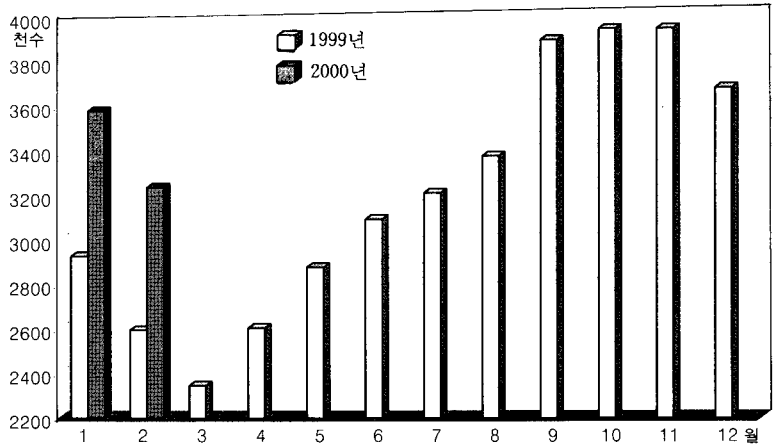
이는 지난 1997년, 1998년에 각각 84억개, 80억개가 생산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추정치는 환우를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998년도의 경우 실제 계란 생산량이 계란생산잠재력(102억개) 보다 20억개 정도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질 경우 이보다 줄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나오지만 올해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질병피해가 늘어날 것은 예상이 되고 있으나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올 하반기 산란 병아리 생산량 위협수위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되기 시작한 종계입식으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병아리 생산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종계입식 수수를 기준으로



〈도표2〉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

조사한 올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38,562,450수로 1994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물량은 1998년보다 오히려 2%가 증가한 물량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종계가 더 입식되는냐에 따라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년도 산란 실용계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겨우 2% 높게 나타나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주시해야 할 것은 금년도 전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11월에 최고물량인 3,954,300수가 생산되는 것을 고비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월 평균 생산량인 300만수보다 장기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나타나 2000년도의 불황에

대비한 생산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산란율 60% 이하 계군 기간 연장할수록 손해

난가가 높게 유지되면 노계도태가 지연되고 이로인해 계란생산이 늘어나면서 큰 알을 중심으로 체화가 일어나 결국 난가가 하락하는 것은 채란업의 한 생리로 자리잡혀 왔다. 현 상황도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에 따라 업을 경영해간다는 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 동안은 극심한 질병피해와 경제위기로 인해 다행히(?) 생산조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그동안 비워두었던 농장들이 다시 입식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난가가 지속되면서 40%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계군을 보유한 농가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생산비 측면에서 도저히 이윤을 추구하기가 힘들며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윤 때문에 하나를 얻고자 아홉을 잃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부터는 60% 이하의 생산성을 보이는 계군은 전 체란인들의 공동 노력으로 도태를 시킨다면 불황은 좀체로 우리곁에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5. 일부 상인들의 상술에 넘어가선 안된다.

지난 5일 본회에서 개최된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계란수입과 관련, 이를 추진했거나 개입한 상인들은 망국적인 매국노로 간주하여 이들을 색출, 계란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이 수입한 계란은 1콘테이너(32만개, 21톤, 태국)물량으로 하루 개란 유통량의

1%정도로 극히 미약한 물량이다.

이들 상인들은 난가가 높은 틈을 타 계란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술책으로 생산자들은 전혀 동요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처음으로 생란이 수입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 등 가까운 나라에서 수입이 대량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데 주목할 필요는 있다.

또한 상인들이 생산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FAX를 이용한 허위조작된 난가 유포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난가고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버리기 위해 협회와 계우회연합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난가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안정적인 채란업 유지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란업계에 악조건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철저한 예방이다. 닭이 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것

이다. 과거처럼 남이 질병으로 손해를 보면 나는 이득을 본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질병전파는 농가스스로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업계적으로 공동 노력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관련 업계에서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질병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는 환우를 절대 금지해야할 것이며, 생산성이 낮은 노계를 난가에 연연하지 않고 조기 도태를 실시하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더 나아가 종계업계에서는 종계입식 물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만약 과잉이 우려될 때에는 모든 종계장이 참여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시도하는 것이 업계를 살리는 길이라 보여진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큰 어려움 없이 금세기 마지막 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본다. **양계**